



1997~1999

동아시아 외환위기

배경 및 경제에 끼친 영향

통화위기가 복합위기로 확대
1997년 7월 태국 외환위기가
동아시아로 확산, 한국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7.5%에서 외환위기 직후 -6.9%까지 폭락.
종합주가지수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47%가량 절하된 406.1
기록,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성장률 및 주가지수 하락.



정책 대응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대응. 한국은 IMF 구제지원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긴축 재정정책,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 수출장려 및 긴축정책 등의 안정화 정책과 국내시장의 대외 개방, 기업·금융 개혁 등의 구조조정 실시, 부실자산 전담처리 기관, 금융기관 자본확충 기구, 기업 채무조정 기관 등 설립.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리먼 사태)

배경 및 경제에 끼친 영향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원리금 상환을 못 하면서 관련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불능 상태에 빠짐. 미국 4대 투자은행(IB)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신청으로
글로벌 경제 악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손실
발생(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 기록).



금융위기별 손실 규모

금융위기	발생 기간	손실 규모	GDP 대비 비중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1982~1989년	2730억달러	3.2%
일본 장기불황	1992~2002	7450억	15
동아시아 외환위기	1997~1999	4040억	34
※ 리먼 사태	2007~2009	9450억	12.7

자료 : IMF·한국금융연구원

정책 대응

미 정부는 정부 및 대형 모기지 대출자들의 주택차입 일시 중지, 부실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부실채권 매입기구 설립 추진,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의결, 기준금리 및 재할인율 인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완 등 다양한 금융제도 개선.

2010~2015년

유럽 재정위기(유로화 사태)

배경 및 경제에 끼친 영향

2010년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줄줄이
구제금융 신청, 남유럽
국가들의 국제수익률 동반 상승으로 유럽 재정위기 악화.
전체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하락. 유로존 실업률은
11.2%까지 상승(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는 20%
초과). 전 세계적 경기둔화 진행.



정책 대응

EU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대책(그리스 채무재조정, 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 유로권 은행 자본 확충 등) 합의. 유럽중앙은행(ECB)은 국제매입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위기 국가의 국제 매입, 장기자금공급조작(LTRO)으로 저금리 금융시장 안정자금을 은행에 공급, 재정위기 국가의 자구 노력.

OECD의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

